

선방골과 삼릉골

①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보물 63호

삼불사 옆에 있는 이 세 석불은 이 주변에 흩어져 묻혀있던 것을 1923년 지금의 자리에 모아서 세운 것이다. 본존불은 높이가 2.75m이며 좌의 보살상은 높이 2.28m, 2.2m이다. 삼존이 모두 명랑하고 친진스러운 어린 아가들처럼 보인다. 풍만한 얼굴에 크게 반원을 그린 눈썹이 깊이 패어졌고 그 밑에 눈두덩이 부풀어 올라 가느스름한 눈자위에 그늘을 지우면서 두 눈이 친진스럽게 웃음짓는다. 짧은 코 아래 두툼한 입술, 그 옆가에 언덕을 이룬 두뺨에 여러 화사한 미소가 피어난다. 두 눈썹 사이에 백호가 뚜렷하고 나발은 구슬따처럼 표현되어 있다. 네모난 발은 평평하게 대좌를 밟아 편안하고, 두꺼운 가사에는 굵은 옷주름이 등성등성 U자형의 대칭으로 표현되어 있다. 수인은 시무외인(施無畏印: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약속)과 시여월인(施與願印: 원하는 바를 모두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삼국시대 불상은 대개 이러한 수인을 하고 있는데 통인이라 한다. 좌협시보살상의 오른손은 설법인을 하고 왼손은 정병을 힘껏 움켜쥐고 있다. 가느스름한 작은 눈이며 조용한 코, 상현달 모양으로 내민 입술은 모두 조그맣게 나타나는데 비해 두뺨은 널따랗게 언덕을 이루었다. 보름달 같이 둥그런 얼굴에 부드럽고도 강한 미소가 넘친다. 두광은 장식적이지 않고 머리에는 관대를 두르고 삼면두식(三面頭飾)으로 장식되었다. 목에는 세 개의 영락(瓔珞)이 달린 목걸이를 걸었고 가슴에는 승기자가 비스듬하게 가려져있다. 우협시보살상은 이중의 연화대 위에 서서 오른손은 영락을 잡고 왼손은 경책을 쥐고 있는 모습이다. 몸은 삼굴자세를 하고있으며 어깨는 약간 움츠리고 있다. 얼굴은 둥글고 눈은 가느스름하여 두눈에 웃음이 서려있고 코는 삼각으로 짧고 입술은 조금 큰편인데 양가에 깊게 파여져 두뺨에 언덕을 이루면서 부드러운 웃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둥근 두광의 테두리에는 두 줄의 선을 돌리고 5구의 화불과 두 송이의 보살화가 배치되어 있어 특이하다. 세줄로 된 영락은 아래쪽에 큰 연꽃이 한 송이 달려있고 허리를 감은 군의(裙衣) 자락을 동여맨 끈이 화려하게 드리워져 있다. 본존불과 좌협시보살은 7세기 중엽, 우협시보살은 7세기 후반에 조성된 고신라불상의 대표작이다.

② 삼릉 사적219호

삼릉계곡의 입구에 있는 이 세 왕릉은 아래에서부터 8대 아달라왕(154~184), 53대 신덕왕(912~917), 54대 경명왕(917~924)의 능으로 주변이 송림으로 둘러싸여 있다. 능의 구조는 신덕왕릉이 1936년 도굴 후 조사에 의하여 갠돌로 축조한 횡혈식석실분(橫穴式石室墳)으로 확인되어 모두 횡혈식석실분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실은 정방형을 하고 있으며, 남벽 중앙에 널길을 설치하였고 높이 35cm, 길이2m의 자연석 시상대가 놓여있어 2인용으로 추정된다. 무덤 내부의 북·동·서 벽면에 높이 1.4m 높이를 12폭을 상하로 나누어 24면에 일정한 순서 있어 주·황·백·균형·감정의 5색을 배색하였다. 이는 신라 고분에서 채색이 확인된 유일한 무덤이기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 왕릉들은 1730년에 지정되었으나 『삼국사기』에는 아달라왕의 장지 기록은 없으며 신덕왕은 죽성에 장사(『삼국유사』에는 화장하여 잠현남쪽에 묻었다)지냈다고 하였으며, 경명왕은 황복사 북쪽에서 장사(『삼국유사』에는 황복사 북쪽에서 화장하여 성등잉산 서쪽에 뿌렸다) 지냈다고하여 왕릉의 진위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계곡 너머 숲술에는 55대 경애왕릉(924~927)이 있다.

③ 냉곡 석조여래좌상

삼릉에서 등산로를 따라 약 500m쯤 올라가면 길옆 바위 위에 머리 없는 석불좌상이 앉아 있다. 높이가 1.6m에 무릎 너비가 1.56m나 되는 큰 좌불이다. 계곡에 묻혀있었으나, 1964년 발견되어 지금의 장소에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마멸이 거의 없고 옷주름이 생생하게 드러나있다. 머리가 없어지고 두 무릎이 파괴되어 수인은 알 수 없다. 편안히 앉은 자세며 힘있게 주름잡힌 심도, 당당한 가슴, 넓은 어깨, 탄력있는 조각, 위풍당당한 자세로 보아 8세기 중엽 신라 전성기의 불상이다. 특히 왼쪽 어깨에서 가사 끈을 매듭지어 무릎아래로 드리워진 두 줄의 영총수실은 사실적으로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매듭공예가 먼 신라 때부터 전해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부처님의 승기지(승옥) 역시 예쁜 매듭으로 묶여져있다. 이 불상의 대좌는 파괴된 것이 아니라 거칠게 치석되어 있어 특이하다. 이 불상의 원위치는 지금처럼 어느 곳 큰 바위 위에 걸터앉아 자연과 어우러져 있던 모습이 아닐까 한다.

④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 지방유형문화재19호

머리없는 여래상에서 북쪽 산등성이를 쳐다보면 뾰족한 바위기둥들이 솟아있는데 그중 한 바위에 빙그레 미소를 머금고 하계를 내려다보고 있는 관세음보살상이 새겨져 있다. 살결이 평만한 얼굴에 미소를 머금었고 오른손은 설법인을하고 왼손은 정병을 들고 있다. 머리에 쓴 보관에는 화불을 배치하여 관세음보살임을 표시하였는데 목걸이와 가사를 동여맨 끈은 나비날개처럼 매듭을 짓고 그 자락이 아래로 드리워져 있다. 발가락 끝에까지 피가 도는 듯 섬세하게 조각된 이 불상은 따스한 촉감을 일으키는 복련(覆蓮)위에 서 계신다. 이 관세음보살상이 서 있는 자리에는 전각을 지을 만한 곳도 없고 기와조각도 떨어진 것이 없으니 처음부터 노천불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을 비바람이 치는 노천에 세운 것은 무슨 뜻일까? 바위벼랑에 불상을 새기고 산기슭에서 올라다보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소리를 듣고 내려오시는 그 감격을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내려 함이 아니었을까? 광배를 따라 만들지 않고 뒤쪽의 비스듬한 바위를 광배삼아 보살상을 조각했기에 방금 하늘에서 하강한 듯한 모습이다. 이 불상이 가장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는 순간은 석양해질 무렵이다. 단풍이 드는 가을철 석양때가 더욱 좋다. 보살상의 높이는 154cm, 어깨너비는 54cm이며 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⑤ 삼릉계곡 선각육존불 지방유형문화재 21호

계곡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끝까지 왼쪽에 자리잡은 넓은 바위에 선각으로 새겨진 불상이 있다. 동서로 펼쳐진 넓은 바위면에 선각(線刻)으로 새겨져 있는 불상으로, 마치 신라의 불교 회화를 보는 듯하다. 동쪽바위 면에는 설법하고 있는 석가모니 삼존불을 새기고, 서쪽 바위면에는 아미타삼존불을 새겨, 현생과 내생을 나타내었다. 아미타불의 수인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수인이며 좌우보살상은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 가득히 연꽃을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이다. 우협시보살상은 연화대대를 생각하여 바위속에서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친 바위에 그림을 그리듯이 선각으로 조성하여 더욱 신비감이 느껴지는 조각이다. 바위 뒷면에 목재를 걸구(結構)한 흔적과 빗물이 건물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길을 파 놓았고, 바위 앞면에 많은 기와조각이 흩어져있는 것으로 보아 목조건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⑥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 지방유형문화재 159호

선각육존불에서 바위 위 등성이로 200m쯤 올라가면 높이가 너비가 각각 10m쯤 되는 넓은 절벽바위가 서쪽을 향해 솟아있다. 그 양벽 중앙에 너비 2.5m쯤 되는 연꽃 위에 초전법륜인을 하고 앉아계신 여래상이 있다. 몸체는 모두 선각으로 나타내고 얼굴만 깎아내어 돌을새김으로 표현하였다. 두 눈썹과 눈은 아주 가깝고 코는 길고 입술은 두툼고 커서 균형 잡힌 얼굴이라 할 수 없으나 소박한 위엄이 있다. 광배는 두광과 신광을 모두 표현하였다. 연화대와 광배등은 굵은 선으로 그었고 옷주름 같은 것은 가는 선으로 변화를 주었다. 상 전체에서 재주를 부리지 않은 소박함을 느낄 수 있는데 머리위의 육계, 얼굴의 투박함, 귀부분 등 세련된 마무리가 안되어 있어 미완성으로 보인다. 남산의 마애불 중 가장 늦은 10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여래좌상 옆의 바위는 부부가 안고 있는 모습같이 부부바위라 불리고 있다.

⑦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보물666호

선각여래좌상에서 오른쪽으로 난 능선 길을 따라 100m정도 가면 숲술에 많은 바위무리가 있고, 그 가운데 순백화강암으로 조성된 여래상이 화려한 연화대석 위에 앉아 계신다. 연화대좌는 투박하게 팔각으로 깎은 하대석과 면마다 안상을 새긴 중대석을 놓고 그 위에 화려한 보살화 연꽃을 올려놓았다. 안상이란 귀인들이 앉는 평상을 말하는 것이니 중대석 위는 절대로 존엄한 세계라는 뜻이다. 이렇게 존귀한 평상위에 보살화로 장식된 화려한 둥근 연꽃송이를 얹어 놓았으니 이 연꽃은 수미산 위에 핀 하늘의 꽃송이인 것이다. 이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은 하대석이다. 보통 불상의 하대석에는 복련을 새기는데, 이 불상은 하대석을 팔각으로 거칠게 깎고 말았다. 불상이 바위 속에서 솟아오르는 모습을 표현한 듯하다. 이 불상 주위에도 건물을 지었던 흔적이 보이지 않아 처음부터 노천불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주위 분위기와 조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준비를 맞는 한이 없더라도 전각을 짓지 않았던 옛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광배의 안쪽에는 부드러운 넝쿨무늬를 새기고 바깥쪽은 힘있게 활활 타오르는 불꽃무늬를 새겼다. 광배는 윗부분이 조금 깨진 채로 불상 후면에 세워졌으나 1963년 겨울,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려 2008년 12월 상호와 광배를 복원하였다. 8세기 후반에 조성된 불상이다. 불상 앞쪽 평평한 곳에 있는 작은 단은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진 탐의 원위치이다. 바위를 탐의 기반으로 삼아 세운 삼층석탑이다.

⑧ 선각마애불

석조여래좌상의 왼쪽 개울을 건너면 상선암으로 오르는 등산로가 나타난다. 개울건너 무덤 주변에서 바라보면 석조여래좌상의 뒤쪽 30여m의 바위절벽 면에 얼굴부분만 선각으로 새겨진 마애불상이 있다. 부드러운 선으로 새겨져 원만한 상이다. 바위 면에 비해 불상이 너무 커서 본래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던 듯하다. 바위속에 숨어있던 부처님이 이 길을 오느라리는 사람들에게 살며시 모습을 드러내 반겨주는 듯한 모습은 아닐까? 9세기에 조성된 불상이다. 이 바위의 오른쪽 바위절벽 중턱에는 1915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석조약사여래좌상이 있었다. 그곳에는 기와조각들이 흩어져 있어 작은 건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⑨ 상선암 마애선각보살상

상선암은 옛 절터에 90여 년 전 세워진 사찰이다. 절 뒤쪽 부서진 바위에 하반신만 선각으로 남아있는 조각이 있는데, 화려한 옷주름과 구슬, 리본등이 새겨져 있어 보살상임을 알 수 있다. 완전할 경우 6m정도 되는 대불이다.

⑩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지방유형문화재158호

상선암에서 150m쯤 올라가면 거대한 자연 암반의 벽면에 6m 높기로 양각된 불상이 있다. 이 여래좌상은 남산에서 두 번째로 큰 불상이다. 얼굴의 앞면과 귀부분까지는 고부주로 원만하게 새겨진 반면, 머리 뒷부분은 투박하게 바위를 쪼아 내었다. 짧은 목에 삼도는 없고 건장한 신체는 네모난 얼굴과 잘 어울린다. 오른손은 가슴 앞에서 설법인을 짓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하여 결가부좌한 다리위에 올려놓았다. 불상의 몸부분은 거칠고 역세게 선각하였고, 좌대부분은 부드럽워진다. 희미하게 사라져 버린 듯한 모습이다. 대좌는 중대석이 생략된 채 양련과 복련이 서로 맞붙어 있으며, 양련의 연잎 안에 다시 화문(花紋)을 장식하였다. 이러한 조각 수법은 불교가 바위신앙과 융합하여, 바위속에서 부처님이 나오시는 순간을 표현하였다고 생각된다. 입체감이 없는 신체표현, 힘이 빠진 옷주름선 등으로 보아 9세기 불상양식을 반영하는 거대불상이다(지금은 낙석위험으로 길을 돌아가도록하여 바둑바위를 지나서 상사바위에서 내려다보아야 한다.)

⑪ 바둑바위

냉골 암봉 바위산 꼭대기에는 금송정터라고 전해오는 건물터가 있다. 그 옆 바위 발판에는 옛날 신선들이 내려와 바둑을 두며 놀았다고 하며, 『동경잡기』(1669)에는 신라 때 옥보고가 거문고를 켜던 곳이라고 한다. 전망이 좋아 서러벌 발판과 북삼안이 모두 보인다.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상사바위를 돌아보고 이 곳에서 왔던길을 돌아 내려가거나, 삼불사 방향으로 내려가면 된다.

⑫ 상사바위와 소석불

상선암 뒤로 높이 솟아있는 남산신 상심이 살고있는 바위로서 동쪽면은 남근석과 기도처, 남쪽면은 산아당으로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들 낳기를 기도하는데 영험이 있다. 1856년에 새긴 산신당(産神堂)이라는 명문이 남아있다. 남산신 상심은 신라 49대 헌강왕이 포석정에 행차했을 때 왕앞에 나타나 춤을 추기도 하였다. 상사바위의 동쪽 면은 기도용 감실이고, 그 안에 머리와 연화대를 잃어버린 작은 석불이 1구있는데, 남산에서 발견된 가장 작은 석불이다. 통인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고신라 불상일 가능성도 있으나 마모가 심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상사바위 앞 공간도 옛절터이다. 여기서 금오산 정상까지는 15분 정도 걸린다.

남산유적답사(무료 안내)

날짜 : 토·일·공휴일 - 09:30

코스 : ①삼릉골 ②동남산산책 ③삼릉가는길 ④남산탐방길 ⑤동남산 ⑥서남산 ⑦남남산 ⑧달빛기행

신청 : www.kjnamsan.org



사단법인 경주남산연구소
慶州南山研究所
The Research Institute of Mt. Namsan in Gyeongju, Korea (The RING)

www.kjnamsan.org

문의전화 : 054-777-7142